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8월 20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1-3절

설교제목 :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25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모음집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저마다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가리켜 나의 절기, 여호와와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적기원을 가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 가운데 제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그’이고, 두 번째는 ‘모에드’입니다. 본문의 절기는 ‘모에드’입니다. 그 뜻이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란 뜻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 가운데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절기인 안식일입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주일성수를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창2:1-3)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규례라고 합니다. 창조규례란 창조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한 법칙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창조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규례가 지켜지면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규례가 위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파괴되고,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규례 안식일 외에 결혼과 노동이 있습니다.(참고 창1:27-28)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규례로서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삶을 통해서 창조세계가 유지되고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주일성수를 목숨을 지켰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 땅에 주어졌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빈곤이 사라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주일성수를 무시하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국가가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성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쉼바트 쉼바톤입니다. 두 단어는 쉼바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원의 두 단어가 반복된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철저히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쉬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쉼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식의 개념에 쉼의 개념이 있지만, 안식의 정확한 개념은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2:15)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발전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발전시켜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갑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다. 우리가 경작과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대리통치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을 이루는 삶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3절에 여호와와 안식일이란 ‘여호와께 대하여’란 뜻입니다. 안식일이 여호와께 향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지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내 만족과 자기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삽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성회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혼자서 쉬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가 연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많이 일어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성도와의 교제는 단절하고 예배만 드려서는 안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안식을 경험할 때, 삶의 자리에서 참된 소금과 빛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가 하루만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길 꿈꾸는 것입니다. 안식은 주일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6일 동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창조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성수가 회복되지 않고는 세상에서 기경하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중심을 차지합니다. 주일성수를 무시하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국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성수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안식일은 창조규례입니다. 창조규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봅시다.(창2:1-3)
- 2)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고, 안식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주일성수가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시고, 온전한 주일성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